

반(反)광산 지역운동과 다중 스케일적 연대 필리핀 라푸라푸 프로젝트의 정치생태학*

Anti-Mining Community Movement and Multi-Scalar Solidarity:
Political Ecology of RapuRapu Project in the Philippines

엄은희**

이 글은 외부에서 주어진 대규모 광산개발 프로젝트가 일으킨 환경악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계형 저항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유형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필리핀의 라푸라푸 섬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이 경쟁하거나 지지하는 담론과 실천들을 검토했으며, 각 행위자들이 귀속되는 스케일별 특성을 밝히고, 나아가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담론의 변화과정을 추적했다.

라푸라푸 프로젝트는 필리핀에서 100% 외국인 소유의 기업에게 주어진 첫 번째 광산개발 허가 사업이다. 라푸라푸 섬은 대규모 광산이 위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이나 다국적 기업과 중앙정부의 공세적 광산개발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 10월에는 두 차례의 광산 폐기물 유출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은 생계상의 곤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출사고 직후 라푸라푸 섬의 반광산 지역운동은 지역 주민들의 생계형 저항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후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이 가담하면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다중 스케일적 저항으로 진화했다. 투쟁의 과정에서 각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담론과 실천의 변화를 만들어냈고, 광산폐쇄를 위한 연대가 강화되었다. 저항 진영은 스케일의 정치학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지구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주요어: 라푸라푸 유출사고, 생계형 저항, 다중 스케일적 저항, 스케일 간 상호작용, 아래로부터의 지구화

* 이 글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HK연구교수, 성공회대(eunhui.com@gmail.com)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환경에서 제3세계의 중앙정부는 종종 자국의 환경과 지역주민의 생계에 큰 해악을 끼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댐·발전소건설, 광산개발 등)를 통해 경제성장을 기대하곤 한다. 역사적으로 누적되어온 주변성에 더해 외자 유치에서 우위를 잡하기 위해 제3세계 국가들은 자기출혈적인 경쟁에 뛰어들게 되며, 그 결과 제3세계의 환경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환경은 자체의 내재적 역동성으로 신자유주의적 기획의 예상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즉, 환경의 역습이라 할 수 있는 환경재난이 발생하여 그러한 자연 환경에 생계를 의존하던 지역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들로 하여금 생계형 저항에 나서게 만들고 있다.

필리핀의 라푸라푸 섬에서 시작된 어민들의 저항도 이러한 전형적인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라푸라푸 섬은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370km 떨어진 인구 1만 명 남짓의 작은 섬(5,589ha)으로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갖춘 어촌 커뮤니티이며, 사실 대규모 광산이 위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¹⁾ 하지만 이 섬에 호주(LML, Lafayette Mining Ltd) 및 한국(LG상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기업들이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한 LPI(Lafayette Philippine Incorporated)²⁾라는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대규모 광산개발사업이 시작되

1)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첫째, 주민의 대다수(70%)가 어민으로 광물자원보다는 해양생태계 자원이 주민들에게 보다 중요하다는 점, 둘째 이 섬이 빈번한 태풍의 이동경로상에 위치해 태풍발생 시 광산유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에 섬의 일부 지역에서 광산개발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광산폐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지역은 현재도 오염된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엄은희(2008b)를 참고할 것.

2) LPI는 호주의 광산기업인 LML의 필리핀 현지법인으로 1998년 필리핀 주식거래소에 정식 등록되었다. LPI는 2004년 아로요 정부의 IPPs 신청을 위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소유관계를 재정비했는데, LG상사와 광진공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말

면서, 자본과 국가의 공세적인 개발의지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저항의 대립양상이 전개되었다.

라푸라푸 프로젝트 2004년 6월부터 본격화되었다. 라푸라푸 프로젝트는 아로요 정부 이후 심화된 광산 자유화 정책에 의해 필리핀에서 100% 외국계 기업에게 허가된 첫 번째 대규모 광산개발사업이었던 까닭에 필리핀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하고 독점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³⁾ 하지만 개발의 주체가 본질적으로 투기자본적 속성을 강하게 지녔던 주니어 광업사(Junior Mining Corporation)⁴⁾이었던 까닭에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광산개발이 진행되었고, 결국 광물 생산 5개월 만인 2005년 10월 광산폐기물 유출 사고가 두 차례나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물고기 폐죽음이 발생하고 이 지역산(産) 물고기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주민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했다. 이에 주민들의 저항이 집단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이들의 저항은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연대와 지원 속에 복잡하고 역동적인 다중 스케일적 저항운동으로 승화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생계형 저항이 지역의 안팎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및 담론들과 조우·협상·경쟁·접합하면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형태로 진화하는 과정을 필리핀의 라푸라푸 섬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즉, 자본과 국가라는 개발 진영의 입장보다는 지역의 주민조

레이시아 라부안의 필코자원(PhilCo Resource)이 지분의 24%를 점유하고 있다.

3) 광산업을 경제발전을 위한 선도산업(flagship industry)으로 선언한 아로요 정부는 2004년 3월 외국계 광업사들이 주도하는 24개 대규모 광산개발사업을 우선 투자 프로젝트(IPPs: Investment Priority Projects)로 지정하면서 「95년 광산법」에 제시된 것 이상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다(엄은희, 2008a). 라푸라푸 프로젝트의 발주기업인 LPI는 아로요 정부의 정책에 호응한 첫 번째 기업이다.

4) 전통적인 광산자본은 대규모의 자본 및 기술 투자를 통해 장기간의 채굴 및 광물생산 이익을 취하는 산업자본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국제 광산업계에서는 자본규모가 작고 주로 탐사에 매진하는 소중규모 광업사들이 등장했다. 이들을 주니어 광업사라 부른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세계 광산업에 유동성 자본이 몰리면서 이들의 탐사 전문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은 훼손되고 점차 단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으로 변질되었다(에리히 폴라트·알렉산더 음, 2008: 268).

직(PO: People's Organization)과 다양한 수준의 사회 운동 행위자와 조직들로 구성된 저항 진영의 입장에서 바라본 광산개발과 유출사고를 포착하고, 이를 재구성해가면서 그 안에서 작동하는 저항담론 및 실천의 정치학을 포착하려는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국지적 스케일에 국한한 지역연구를 넘어 시공간적 프레임을 확대해가며 지역의 환경문제에 다중 스케일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다중 스케일적 접근은 1980년대 이후 형성되어온 정치생태학 연구 분야의 특징이다(Newmann, 2005). 정치생태학 연구는 국지적 지역에서 환경문제를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넘어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영향력과 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의 출발점은 라푸라푸 섬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광산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주민들의 생계곤란이다. 하지만 단순히 거대하고 탐욕스런 다국적 기업 대 가난하지만 선량한 지역주민이라는 대립구도는 지양한다. 이해의 맥락을 확대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라푸라푸 섬, 지방정부, 국가, 지구 수준의 개발 및 저항 진영의 담론과 실천을 대비시키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운동의 등장을 포착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들은 연구자가 박사논문을 위한 현지조사 활동을 벌인 2006년 7~12월과 2007년 6~9월에 다양한 정보원에게서 수집한 것이다. 자료들은 주로 면담에 의한 1차 자료들과 관공서 및 다양한 수준의 단체들이 만들어온 아카이브와 사진자료 등의 2차 자료들이 다수 활용되었으며,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면접자의 동의와 허가에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인터뷰 및 아카이브 목록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에서 사용한 인터뷰 및 아카이브 목록⁵⁾

구분	고유 번호	상세정보(대상, 장소, 날짜)	소속단위· 제작자
인터뷰	I_001	안토니오 신부 / 라푸라푸 섬 교회 숙소 / 2006.11.18	산타플로렌 시나성당
	I_002	요한 프리츠(뱅크트랙 활동가)와 사라 인터뷰 / 레가스피 아쿠 나스 대학 / 2006.11.20	뱅크트랙
	I_003	이누 신부 / 라푸라푸 섬 교회 / 2006.11.25	산타플로렌 시나성당
	I_004	망 토니(사집 이슬라 대표) / 망 토니의 집 / 2006.11.27	사집 이슬라
	I_005	Rose(우말파스카 활동가) / 바랑가이 마나나우 / 2006.11.28	우말파스카
	I_006	Beau(그린피스동남아 필리핀지부 활동가) / 이메일 인터뷰 / 2007.2.11	그린피스
	I_007	페르디난테즈 교수 / 레가스피 대학 / 2007.8.29	SARA
	I_008	랑가스 M.(주지사 살세다의 환경담당 보좌관 / 알바이 주청사 / 2007.9.4	알바이 주청 부
간접 인터뷰 (in 이본 자료집)	I_009	Janice(30대 여성 말로바코 주민) / 바랑가이 말로바코 / 2007.3.	사집 이슬라
	I-010	Renan(23세 비노사완 거주 라파엣 노동자) / 바랑가이 비노사 완 / 2007.3.	섬 주민
아카 이브	A_001	<Confronting TNC control in RP Mining>, 이본재단의 정세 동향지인 Fact & Figures의 특별호 / 2005.1.15	Ibon Foundation
	A_002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RRFCC> / 진상조사위 원회의 최종보고서 / 2006.5.19	RRFCC
	A_003	<Fool's Gold> / 그린피스 동남아의 요청으로 Risk Asia Consulting이 제작한 보고서 / 2006.6	그린피스 동 남아시아
	A_004	<Mining in RapuRapu: A Countdown to Disaster>, 그린피스의 의 팸플릿 / 2006.8	그린피스
	A_005	<Lafayette Quarterly Report>, 태풍 르밍에 대한 피해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 2006.12.31	LPI
	A_006	<RapuRapu: A struggle against Mining Liberalization and Pluder in the Philippine>, CEC가 제작한 라푸라푸 투쟁 자료 집 / 2007.1	CEC-Phil.
	A_007	<Mining RapuRapu's pot of Gold> / 이본재단이 사고 경과 1 년 후 섬을 포함한 5개 지역을 조사한 보고서 / 2007.4	Ibon Foundation

기타 자료	E_001	<Save the RapuRapu, Our people, and National Patrimony>, 디펜드 패트리모니 설명서 / 2006.6	디펜드 패트리모니
	E_002	<Mining in RapuRapu: A Countdown to Disaster>, 그린피스 의 팸플릿 / 2006.8	그린피스
	E_003	LPI의 사고 후 프레젠테이션 자료 / 라푸라푸 내 LPI 사무소 / 2006.11.22(참석자: 요한 프리츠(뱅크트랙), 연구자)	LPI
	E_004	<the struggle to Save Rapu-Rapu>, 사투레이 주니어 ppt 발표 자료 / 레가스피 군청사 / 2007.8.28	SARA
	E_005	페르디난테즈 교수의 ppt 발표 자료 / 레가스피 군청사 / 2007.8.28	SARA

2. 이론적 배경

1) 필리핀 사회운동의 변화와 특징

필리핀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윌든 벨로에 따르면, 민주화 이전, 즉 마르코스 치하에서 본격화된 필리핀의 사회운동은 독재에 의한 지배 체계 모니에 대해 반독재 민주화 체계모니를 추구했고, 이들은 대규모의 무혈 민중봉기에 의해 마르코스 독재정치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운동 진영의 역사적인 승리라 할 수 있다(Bello et al., 2004). 또한 민주화 이후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1987년 신헌법, 다당제, 양원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냈다(박승우, 2007). 그러나 스페인 식민지 시대 이후 지역사회의 경제와 정치를 장악해온 과두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이러한 제도가 독점당하면서 필리핀 정치는 여전히 혼돈 속에 놓여 있다(허치크로프트, 1992; 박승우,

5) 위 목록의 자료는 연구기간 동안 연구자의 직접인터뷰 및 다양한 단체가 구축한 아카이브 등의 일부임. 단, 간접인터뷰의 경우 아카이브 A_007의 이본재단 보고서에서 발췌해서 사용했다. A_007 보고서의 경우에는 이 지방 토착어인 비콜라노로 인터뷰를 실시한 후 이본의 활동가가 영어로 재번역한 결과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2007).

박승우(2008)는 필리핀 사회운동의 변화를 다변화(diversification)와 분열(fragmentation)의 틀로 설명한다. 그는 다변화를 다양성과 복잡성의 증대로 사회운동이 제도화 전문화되며 발전하는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로, 분열을 대립과 갈등의 측면을 수반하는 사회운동 조직의 부문별·이념적 분열과 대립의 과정으로 대비시키면서 사회운동—특히 전통적 저항운동—의 침체를 해석하는 틀로 활용했다. 결론적으로 박승우는 소위 신사회운동을 펼치는 시민사회 진영은 다변화의 수혜를 얻어 발전했지만, 전통적으로 저항운동을 펼쳐왔던 진보적 저항운동 진영은 분열 과정에서 침체와 굴곡을 겪고 있다고 다소 비관적으로 진단한다.

반면 신사회운동으로 구별되는 여성운동의 시각에서 필리핀의 사회운동을 조망한 허성우(2008)는 이러한 분화와 분열이 실제로는 저항의 사회운동 공간을 확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즉, 민주화 이후 지배 헤게모니가 산재하기 때문에 대항 헤게모니도 가능한 많은 삶의 영역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사회운동 진영의 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박승우의 연구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과연 시민사회 운동 진영과 진보적 저항 진영이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시민사회 운동을 주도하는 NGO들의 상당수가 개발의제를 중심에 두고 해외의 자금지원을 받으며, 다양한 스케일에서 각급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도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위 진보적 NGO들은 여전히 진보적 저항운동 진영과의 연계를 중시하며, 공개적으로 중도좌파 정당인 악바얀(Akbayan) 혹은 민족민주 진영인 바얀무나(Bayan Muna)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마닐라 소재의 국가 스케일의 환경단체인 CEC-Phil이나 깔리카산(Kalikasan)의 주요 활동가들은 20대였던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부문운동에 진출했으며, 여전히 민주화·빈곤·사회부정의를 주요한 운동의제로 여기고 있다.⁶⁾ 나아

가 다음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환경은 역설적이게도 서로 다른 스케일의 사회운동이 새롭게 접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2) 지구화와 스케일 전략을 통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접합

조희연(2008)은 한 사회의 민주화 과정을 독재체제라는 구(舊)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재정의하며, 민주화 이후에는 포스트-개발 자본주의화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영향으로 인한 신(新)모순이 출현하면서 사회운동은 다양한 경로의 변화와 재구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포스트-개발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자장 안에서 국가별로 다양한 경로의 접합을 만들어낸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결합한 ‘포스트-개발자본주의화’ 과정은 민주화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경제적 탈독점화를 역전시키고 과거의 경제적 독점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어하고 새로운 경제적 독점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이데올로기로서 ‘경쟁력 강화’와 같은 새로운 담론을 국가 및 개인 수준에서 수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구화 시대 무한경쟁과 신개발 드라이브에 자발적으로 동조하게 만든다.

하지만 현재의 지구화 과정의 핵심이 되는 신자유주의적 기획은 기존의 국가 중심성을 뒤흔들고 제도와 국경에 균열을 만들어냄으로써, 역설적으로 사회운동 진영에서 이를 기회로 활용해 대안적 지구화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⁶⁾ 사회운동 진영이 만드는 새로운 정

6) 아로요 정부하의 비사법적인 살인(extrajudicial killing)의 주요 대상이 지역과 중앙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라는 점도 필리핀에서 환경운동이 단순히 신사회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님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 아로요 정부 등장 이후 환경운동가, 광산반대 활동가, 토착민운동가 등에 대한 정치적 살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할 것(Mine and Communities: <http://www.minesandcommunities.org/article.php?a=1243>).

치는 정부나 자본 또는 지배세력에 의해 부여된 질서에 대해 저항세력들이 대안적 운동 스케일을 창출하거나 바깥으로부터의 연대와 지원과 같은 유리한 저항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케일을 생성·변형·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⁸⁾

저항 진영에서 스케일의 정치는 지방의 조직들이 상위 스케일의 단체와 연대를 통해 이슈를 확대하고 보다 큰 영향력을 획득하는 스케일 상승 전략이 대표적이다. 켈리(Kelly, P.)는 필리핀 아마야(Amaya) 지방에 초국적 투자 컨소시엄이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자 이에 대해 아마야 환경단체들이 국제 NGO와 연대해 지방의 이슈를 세계적 환경문제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결국 발전소 건설을 저지시킨 사례를 스케일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소개했다(Kelly, 1997). 이는 일종의 부메랑 효과로 국가나 외국계기업들에 의해 지방에서 환경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나 지구적 수준의 조직들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밖(지구)에서부터 안(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도 하다(정현주, 2006).

3) 다중 스케일적 상호작용: 담론과 실천의 형성과 교류

사회운동 내부의 다양한 스케일적 행위자들은 실천과 담론(discourses)을 통해 상호작용한다. 여기서 담론은 푸코(Michael Foucault)의 영향을 받은 다수의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주제가 사고되는 방식을 폭넓게 구조화하는 일반적 주제들에 대한 일반

7) 폴라니(K. Polanyi)는 이러한 과정을 자기조정적 시장 논리의 확장과 사회의 대항적 보호 논리 간의 이중운동(double movement)으로 설명했다(이병천, 2004).

8) 스케일은 사회적 관계들이 일정한 공간적 구속력하에 결합되어 있는 공간적 구조를 의미하는데, 최근 들어 지구화와 지방화 논쟁이 촉발된 이후 새롭게 주목받는 지리적 개념이다. 스케일은 절대적으로 주어진 고정된 담지체(container) 담론 생산과 더불어 거시적 수준의 사회 구조의 변화와 미시적 수준(일상)에서의 실천의 결과와 같은 물질적 변화를 수반한다(Marston, 2004).

적인 의미의 교환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힐호스트(Hillhorst, 2003)는 필리핀 북부의 코르딜리아 지방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수준의 NGO들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NGO됨의 정치학(politics of NGO-ing)’을 묘사한다. 그녀는 다양한 NGO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기 위해서는 내부 담론의 작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NGO 내외부의 행위자들의 가치관과 실천을 관찰하며, 행위자들의 담론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국가, 지구적 복잡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통상 제3세계 NGO는 발전(혹은 개발)담론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지배적인 발전 담론의 영향력은 상당하지만, 진보적 NGO에 의한 대항담론의 생산이 가능하며 나아가 지역에서 새롭게 규정되는 발전 담론도 지배담론과는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담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변화된 상황과 추가적인 정보는 행위자들의 담론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담론의 변화는 타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강화될 수도 있다. 또한 의사소통은 스케일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스케일을 넘나드는 행위자들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상의 이론적 지형에 유의하면서,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특정 담론이 다른 담론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갖는 시점과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세해진 담론이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각자의 담론에서 어떠한 변화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3. 필리핀의 광산개발사와 라푸라푸 프로젝트의 맥락

1) 자본과 국가 제도의 변화

국가적 스케일에서 필리핀 광산업은 미국 식민지 시절부터 현재까지를 제도의 변화에 따라 다음 네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엄은희, 2008a).

첫 번째 단계는 미국 광산자본의 독점기로,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식민지 필리핀을 양도받은 1898년에서 벨 무역법의 효력이 만료된 1972년까지이다. 1946년 필리핀은 독립을 맞이하지만, 미국의 광산기업들은 필리핀인과 동일한 혜택을 약속하는 벨 무역법의 효과를 1960년대 내내 누릴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복수의 다국적 광산자본의 공동 점유기로, 1972년에서 1993년까지이다. 이 시기 필리핀 광산업의 특징은 미국의 독점력이 해체되면서 캐나다나 호주의 광산자본들이 진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세계 광물가격의 폭락과 더불어 광산업이 침체되는 때였다.

세 번째 단계는 필리핀 광산업의 자발적 신자유주의화기로, 1993년 라모스 정권의 등장에서 2002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라모스 정권이라는 자발적 신자유주의 세력의 등장과 광산업의 신자유주의적 제도변화의 초석이 되는 공화국법 7942(RA 7942) 혹은 「1995년 광산법」이 통과된 것이다.⁹⁾ 표면적으로 이 시기는 변화의 통제권이 다국적 자본이나 국제대부기관들에서 필리핀 정부로 이동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면에는 이미 다국적 기업과 국제대부기관들이 제시하는 질서가 내재화되었으며,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에 의한 대규모 개발과 수출지향적 광산의 구조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신자유주의적 광산자유화의 심화기로, 2002년 아로요 정권의 등장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기간은 라모스 정권 시기 진입한 외국계 광산자본들이 탐사의 단계를 벗어나 개발과 생산의 단계로 탈바꿈하려는 시기이다. 아로요 정부는 「1995년 광산법」을 기초로 NMP(National Mineral Policy)이나 MAP(Minerals Action Plan)와 같은 제도 및 정책적 수단을 통해 다국적 광산기업들의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했다(Ibon Foundation, 2005).

9) 필리핀 광산업의 지구화 과정에서 「1995년 광산법」이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Tujan and Guzman(2002)을 참고할 것.

2) 국가적 반광산연대의 형성과 저항

1970년대 이후 필리핀의 사회운동 세력의 강화와 더불어 광산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국가 스케일에서의 환경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들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가시화된 광산개발 현장에서 토착민들과 지역주민들의 환경파괴와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대한 고통호소에 대응해 지역적 수준과 국가적 수준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지역적인 수준에서는 주민들의 저항을 조직하면서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토착민들의 토지점유 권리, 조상의 땅(ancestral domain), 토지전환에 대한 저항, 게릴라성 혹은 소규모 광업행위의 보장을 제도화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들의 노력은 즉자적·산발적이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된(혹은 일관된) 형태로 드러나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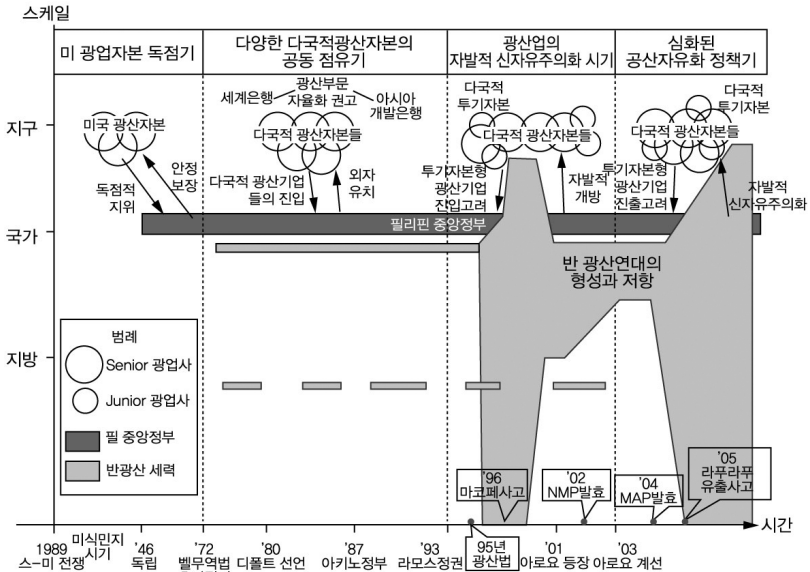
1996년 마코퍼 참사의 결과는 필리핀 내 광산반대 세력의 산발적 투쟁이 범국민적인 저항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코퍼 참사 이후 개별적·산발적 활동을 전개하던 저항세력들은 ‘디펜드 패트리모니(Defend Patrimony)’를 결성하면서 범국가적으로 조직화되었다. 이들은 지역의 수준에서 저항하는 주민들을 옹호(advocacy)하고 이들에 대한 법률적·조직적·교육적 활동을 지원(support)하는 한편 국가적인 수준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전개했다.¹⁰⁾

한편 마코퍼 사건을 기점으로 다수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수출주도형 대규모 광산개발 우선 정책에 반발하며, 반광산연대의 주요한 축을 형성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축소에 따른 권력이양 절차를 통해 광업권의 인허가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들은 마코퍼 참사 이후 이러한 권한을 이용해 광산 승인 취소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¹⁾ 지방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신자유주의화의 주요한 특

10) 범국가적 반광산연대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디펜드 패트리모니의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http://www.geocities.com/defendpatrimony/>).

11) 홀든과 자콥슨(Holden and Jacobson, 2006)은 이를 ‘분권화의 역설’로 설명한다.

<그림 1> 필리핀 광산업의 전개와 시기별 광산갈등의 세력도
(연구자가 그림으로 재구성함)



정인 자본의 지구-지방화(globalization)(Swyngedouw, 2004)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광산업이 다국적 기업과 중앙 정부에 의해 주도되면서 지방정부를 우회하고(bypass) 바로 국지적인 지역과 연결되면서 지방정부는 광산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된 것에 대한 저항을 펼치는 것이다.¹²⁾

하지만 이러한 범국민적 저항은 국외적으로는 외환위기, 국내적으로는 에스트라다 정부의 각종 정치스캔들과 불명예 퇴진을 겪는 과정에서 1999년을 정점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¹³⁾ 하지만 2001년 아로요가

12) 지구-지방화 논의는 종종 국가의 후퇴라는 논의와 접목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에서 국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가는 탈규제의 전략뿐 아니라 적극적인 재규제 정책을 통해 지구적 자본과 국지적 자원보유 장소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는 이러한 과정을 매개하면서 세수(revenue)를 통한 재정확보의 이익을 누린다.

13) ‘디펜드 패트리모니’는 1999년 재정기술지원협약(FTAA)의 헌법일치 여부를

대통령직을 승계한 이후 국가와 자본진영의 광산업 부흥에의 의지가 강화되면서 광산개발의 압력은 강화되어 갔다. 아로요 정권하에서 국가광물계획(NMP, 2002), 광물행동계획(MAP, 2004)이 발효되었고 2004년 12월에는 대법원이 「1995년 광산법」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하면서 광산업을 선도산업(flagship)으로 삼으려는 정부정책이 힘의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Tujan and Guzman, 2002). <그림 1>은 필리핀 광산개발의 전개과정과 반광산연대의 활동을 주요한 국면 전환의 사건들과 함께 표시한 것이다.

3) 라푸라푸 프로젝트의 역사적 위치

라푸라푸 프로젝트는 필리핀 광산업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 100%인 다국적 광산기업이 광업권을 승인받은 첫 번째 사례이다. 따라서 광산업의 찬반 양 진영 모두 중요한 상징성을 부여받는다. 광산업을 통한 경제부흥을 지지하는 중앙정부와 자본은 라푸라푸 프로젝트를 통해 신개발 동력을 창출하려고 한다. 따라서 라푸라푸 프로젝트의 운영주체인 라파엣에게 제도적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란 특혜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경제특구 지정이라는 제도적 지원과 우선투자 프로젝트로서의 추가적인 면세 인센티브가 해당된다. 한편 외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광산개발에 반대하는 사회운동 진영의 입장에서는 라푸라푸 프로젝트를 막아내어야만 뒤이어 지정된 23개 우선투자 프로젝트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2005년 10월에 발생한 광산폐기물 유출사고는 국가 및 자본진영과 시민사회 진영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이다. 국가와 자본은 이 사고를 제대로 마무리해야만 후속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범국적인 반광산연대의 저항을 재집결해 환경과파괴적이며 반민중적인 광산개발을 저지하고 「1995년 광산

문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이제 범국민적 반광산세력은 그 결과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Ibon Foundation, 2005).

법」의 재고(再考)까지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되었다.

4) 라푸라푸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1) 안개 속의 관망기

라푸라푸 프로젝트에 관한 주민들의 인지는 1999년 여름 파콜본 지역에서 임시숙소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지피가 제거된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이 교회에 이를 보고하면서 시작되었다(기타자료: E_004).¹⁴⁾ ‘대희년(the Great Jubilee Year 2000)’ 행사를 준비하던 섬 관내의 산타 플로렌시나 성당(Parish of Sta. Florentina)에서는 신부와 섬 청년조직을 중심으로 광산개발에 대한 사실을 수집하려는 조사모임이 조직되어, 파콜본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군청과 레가스피의 언론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1999년 11월 7일 개최된 대희년 포럼에서 안토니오 신부(Fr. Antonio)에 의해 라파엠티라는 호주기업이 주도하는 광산개발이 라푸라푸 섬에서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다(인터뷰 자료: I_001).

주민 대부분이 어민인 작은 섬에서 광산개발은 그들이 생계를 의지하는 바다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반환경적 사업으로 인식되었다(인터뷰 자료: I_004).¹⁵⁾ 따라서 대희년 포럼 이후 교회와 주민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던 레가스피 시의 다양한 단체들은 섬과 레가스피 차원에서 광산 조업에 반대하는 조직을 결성하기로 결의한다. 먼저 섬에서는 ‘사깁 이슬라(Sagip Isla)’라는 주민조직이 1999년 11월에 만들어졌고, 레가스피에서는 ‘생태포럼희년(Jubilee for Ecology Forum)’이라는 느슨한 형태

14) 기타자료 E_004는 2007년 8월 28일 레가스피 군청사에서 개최된 지역 컨퍼런스에서 사라의 활동가인 사투레이 주니어가 발표한 ppt 자료로, 라푸라푸 주민 및 레가스피 시민들의 투쟁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15) 사깁 이슬라의 대표인 망 토니와의 인터뷰에서 섬 주민들은 1960년대 히스바 광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광산개발에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히스바 광산의 갑작스런 폐쇄 이후 산타 바바라의 많은 주민들이 직업을 잃었고 강과 바다가 오염된 까닭에 사람이 살기에도 어려운 환경이 되었던 것이다.

의 환경단체 연석회의가 2000년 3월에 구성되어 라푸라푸 주민들의 투쟁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교회를 통해 라푸라푸 섬에서의 광산 개발 소식이 교구단위로 전달되었고, 1999년 12월 소소곤 주의 주교인 퀴암바오(Bishop Quiambao)가 라파엣의 광산개발에 반대한다는 교서(pastoral letter)를 교구 내 신부들에게 발송했다(기타자료: E_001).

곧 라파엣 측에서도 관공서와의 접촉 및 직접 주민 홍보를 통해 광산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보다 조직적인 광산반대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민 및 레가스피 운동세력의 판단하에 ‘생태포럼희년’을 ‘생태적관심포럼(Forum for Ecological Concerns)’이란 조직으로 개편한다(인터뷰 자료: I-007).¹⁶⁾ 이들에 의해 라푸라푸의 광산개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마닐라의 환경단체들에게도 전달되었고, CEC-Phil로부터 국가 수준에서 캠페인을 전개해 라푸라푸 주민들의 투쟁을 지원할 것을 약속받았다.

광산업은 본래 회임기간이 긴 사업으로, 탐사에서 실질적인 생산에 이르기까지 최소 7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저항은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른바 ‘메아리 없는 싸움’의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라파엣은 국가 수준에서는 2002년 대선과 지방 수준에서는 2004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아로요 대통령과 주와 군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로비활동을 전개하며, 프로젝트 현실화를 위한 이면작업을 수행해갔다. 라파엣은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해 광산개발 지역을 경제특구(Ecozone)로 지정받으려 노력했다. 2004년 3월 라푸라푸 프로젝트가 아로요 정부의 우선투자 프로젝트 1호로 지정받으면서 라파엣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2004년 3월 말에 말로바고와 파클본 지역을 중심으로 항구 및 광산시설 공사들이 시작되었

16) 사라의 대변인인 페르디난데즈 교수는 조직 개편의 이유를 라푸라푸 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생태포럼희년’이 다소 종교색채가 강한 조직이었다면 ‘생태적관심포럼’은 알바이 주의 학계와 다양한 사회운동조직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직이었다.

다. 2004년 5월 4일 대통령 포고령 625호를 통해 경제특구 지정을 허용 받으면서 라푸라푸 프로젝트는 현실화되었다(기타자료: E_004). 실질적인 개발국면이 펼쳐지자 사깁 이슬라 회원들을 제외한 많은 주민들은 라파엣의 광산개발 현장에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수입을 얻기도 했고, 장기적인 고용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주민들 간, 주민들과 교회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인터뷰 자료: I_003).¹⁷⁾

(2) 사고와 조직화된 활동

2005년 10월 두 차례의 광산폐기물 유출사고는 꺼져가던 반라파엣 광산연대의 활동에 새로운 도화선이 되었다. 기존의 활동이 미래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추상적인 반대운동이었다면, 사고 이후에 직접적인 보건·생계상의 위협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반광산 활동은 보다 조직적으로 변모했다. 섬(Community)에서는 사깁 이슬라가, 레가스프(Province)에서는 생태관심포럼이, 마닐라(national)에서는 CEC-Phil과 깔리카산 등이 사고 후 물고기 사체들을 수집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도를 확인했다. 지방정부들도 라파엣과 정부에 관리 책임을 물으면서 반대운동 진영에 가담했다. 특히 인근 소소곤의 주지사는 라푸라푸 프로젝트의 이해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사고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자체적인 역학조사를 의뢰했다(기타자료: E_004).

사태가 심각하게 번져나가자 환경부는 2005년 11월 라파엣에게 진행 중단을 명령하고, 오염정화위원회(PAB: Pollution Adjustment Board)를 소집해 환경준수면허(ECC: 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 위반을 이유로 1

17) 산타플로렌시나 성당의 이누 신부와의 인터뷰 결과 교회가 일부 주민들, 특히 말로바고의 이주단지 주민들과의 불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광산개발이 시작되면서 라파엣 측이 제공하는 신주거지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현지연구 당시 산타플로렌시나 성당은 격주로 섬 안의 바랑가이를 돌며 순회미사(Circuit Mass)를 진행했는데, 조사 당시 이주 단지는 순회미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천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한다. 라푸라푸 군의회(Sanguin Bayan)도 라파엣에게 허가된 ECC와 경제특구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서를 환경부와 필리핀경제특구청(PEZA)에 보내기도 했다(기타자료: E_004).

사고 이후 라파엣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단행한다. 우선 LPI의 필리핀관리자를 호주인에서 필리핀인으로 교체하고 ‘책임 있는 광업(responsible mining)을 회사의 새로운 구호로 채택했다. 이들은 사고 이후 주변지역을 정화하고 광산시설물을 보강했고, 광산지에 대한 방문객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들을 초청하기도 했다(기타자료: E_003). 2006년 2월 16일에는 알바이 주청사에서 대중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사깁 이슬라와 생태포럼의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청사 밖에서 피켓팅을 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기타자료: E_004).

라푸라푸 사태가 범국가적인 광산반대 운동으로 진화해가자 마침내 아로요 대통령은 2006년 3월에 행정명령을 통해 라푸라푸진상조사위원회(RRFFC: RapuRapu Fact Finding Commission)를 구성할 것을 약속하고 소스곤 주 주교 귀암바오를 대표로 임명한다. 라푸라푸진상조사위원회는 2개월간의 다양한 조사활동을 벌인 후, ‘라푸라푸 섬의 광산 모라토리엄 선언’과 ‘1995년 광산법 재검토’를 권고사항으로 담고 있는 최종보고서를 2006년 5월 19일 말라카냥 대통령 궁에 제출한다(아카이브: A_002).

(3) 배반당한 약속과 대규모 주민투쟁

RRFFC의 보고서가 섬에서의 광산폐쇄를 권고했지만, 환경부의 최종 판단은 이와 상반되었다. 환경부는 2006년 6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론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광산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유익하고 이왕이면 ECC를 발부받은 라파엣이 조업을 이어가는 것이 옳다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은 커져만 갔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위원회 해체 후 ‘SARA(Save the Rapu- Rapu Alliance)’라는 새로운 조직의 구성을 결의하고 6월 6일 레가스피의 아퀴나스 대학에서 SARA 창립을 선언한다. 창립선언문에서 이들은 SARA의

최종적인 목표가 라푸라푸 광산의 폐쇄에 있음은 명시했다(기타자료: E_005).

2006년 6월 15일에는 사라가 주도하는 대규모 기도회가 레가스피의 광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집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집회참여자(평소 친아로요 정치인이던 살세다(Joey Salceda)였다(인터뷰: I_007).¹⁸⁾ 집회에서 살세다는 ① 다양한 분야의 많은 참여자들이 반광산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놀랐다고 밝혔으며, ② 광업사가 계획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로 비난하기도 했다. 기도회가 끝난 후에는 지역주민들과 아퀴나스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이 진행되었다(기타자료: E_005).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환경부의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환경부는 2006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라파엣에게 30일간의 시험가동을 허가했다. 시험가동을 허가하면서 환경부장관인 레이스는 “(라파엣이 다음에도 실패하면, 내가 직접 폐쇄하겠다”¹⁹⁾는 발언을 통해 필리핀 정부의 우선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인 라파엣의 라푸라푸 프로젝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사라는 2006년 7월 11일 대규모의 ‘검은 화요일 시위(Black Tuesday Rally)’를 다시 조직해 환경부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기타자료: E_005).

(4) 국제단체의 지지와 선거투쟁

필리핀인들에 의한 광산폐쇄 저항은 라푸라푸 광산사고가 널리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단체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2006년 8월 22일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가 에스페란자(Espelanza)호를 이끌고 라푸라푸 섬 앞에 정박하면서 라푸라푸 광산폐쇄를 지지·지원하는 활동

18) 살세다는 1998년에서 2007년까지 알바이 제3구역의 하원의원이었으며, 2007년 선거 전까지는 아로요 대통령의 수석보좌관을 역임했다(출처: http://en.wikipedia.org/wiki/Joey_Salceda).

19) Philippine Star “Jun.15, 2006” 인터뷰 자료.

을 전개했다. 에스페란자는 8일간 라푸라푸 섬에 정박하면서 해상시위, 해상미사, 해양조사 등을 진행했고, 라파엣과 투자자들을 수신인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기타자료: E_002). 하지만 그린피스가 떠나고 난 며칠 후인 2006년 9월 10일 환경부는 라파엣에게 60일간의 시험가동 연장을 허가했다. 그러나 곧 자연재해가 라푸라푸 섬의 광산조업에 영향을 미쳤다. 2006년 9월 27일 슈퍼태풍 밀레노(Mileny)가 알바이 주를 강타하면서 시간당 139mm의 폭우를 쏟아 부었다. 태풍으로 라파엣은 광산지역의 일부 시설과 항만시설에 손상을 입었다.²⁰⁾

2006년 11월 20일에는 네덜란드의 환경단체인 벅크트랙(Banktrack)의 활동가가 필리핀을 방문했다. 벅크트랙의 활동가인 요한(Johan Frits)은 사라와의 인터뷰를 통해 첫째, 라푸라푸 섬이 광산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둘째, 자국의 은행에게 라푸라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 셋째, 밀레노가 광산에 영향을 미칠 마지막 태풍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인터뷰: I_002). 나아가 2006년 11월 22일에 요한과 연구자는 함께 라푸라푸의 광산을 직접 방문해 현장탐방 광산 운영진들과 장시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2006년 10월 30일에는 강도 4에 해당하는 슈퍼태풍 르밍(Reming)이 알바이만을 다시 강타했다. 라푸라푸 섬에서만 13명이, 레가스피 시에서 수백만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였던 만큼 라파엣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을 공식 인정했다(아카이브: A_004). 하지만 라파엣은 오히려 태풍으로 인해 허가받은 시험가동 일수의 일부를 손해보았다고 주장하며 시험가동의 일수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총 3차례의 시험가동 연장 이후 환경부는 2007년 2월 7일 공식적으로 라파엣에게 내려진 프로세싱 조업중단 명령을 해제했다.

주민들의 광범위한 저항과 국가적·국제적 환경단체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라파엣의 광산조업 활동이 완벽하게 보장받게 되자 사라의 투쟁

20) Daily Inquirer, "'Mileny' causes severe damage to mining facility", "2006. 10.4".

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7년은 필리핀에서 지방정부 선거가 있는 해였다. 사라는 2007년 4월부터 라푸라푸에 반대하는 후보자를 지지하지는 선거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2007년 5월 14일 지방선거에서 반라파엣을 선언한 살세다가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이후 알바이 주정부는 사라와 사깁 이슬라의 다양한 반라파엣 투쟁들을 측면에서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기타자료: E_005).

4. 다중 스케일적 연대와 담론의 상호작용

1) 반라파엣연대의 구조²¹⁾

(1) 커뮤니티 스케일

① 사깁 이슬라(Sagip Isla)²²⁾: 1999년 11월 7일 대회년 포럼을 개최한 후, 섬 내에 상시적인 대책위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렴해 건설된 커뮤니티 조직(CO)이다. 사깁 이슬라는 섬 내 13개 바랑가이의 주민들이 고루 참여하고 있으며, 라파엣에 고용된 노동자들 중 일부도 포괄한다. 사깁 이슬라는 라푸라푸 광산개발과 유출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이해당사자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광산개발은 환경문제이기 이전에 생계의 문제다.

사깁 이슬라의 주요 구성원들로는 바랑가이별 주민 대표, 어촌계 관련자들, 중학교 및 커뮤니티 대학의 학생회, 보건소 직원, 교회 직원 등이 망라되고 있다. 조직의 대표는 토니(Mang Toni)라는 바랑가이 포블라시옹의 어민이 맡고 있으며, 성당과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조직 초기에 사깁 이슬라는 교회의 지도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으나, 2004년

21) 반라파엣 연대의 구조를 스케일로 구분하는 것은 브라이언트와 베일리(Bryant and Bailey, 1997: 136)의 제언을 따른다.

22) 공식 명칭은 사깁 이슬라 사깁까와(Sagip Isla Sagip Kawa)로 “섬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자”는 뜻을 지닌 비콜라노(Bicolano)이자 따갈로그(Tagalog)이다.

이후 투쟁의 과정에서 스스로 정치화되고 역량이 강화되면서 사깁 이슬라는 교회의 지도를 받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섬 밖의 단체 및 개인들과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성장했다.

② 산타 플로렌시나 성당: 라푸라푸 섬에서 광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데는 섬의 중심인 포블라시옹에 위치한 성당의 역할이 컸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가톨릭교회의 신자인 상황에서 사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교회는 1999년 여름 이후 현장조사와 대책위원회 구성을 주도하면서, 섬 안팎을 연계하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즉, 섬 안에서는 교회와 신자모임, 섬 밖에서는 다양한 지역운동조직, 교회 청년회, 대학교수와 학생, 신앙인 모임, 언론사들이 활동에 참여했다. 2006년에는 안토니오(Fr. Antonio)와 이누(Fr. Ino)라는 두 신부가 사깁 이슬라를 지도하면서 반라파엣 운동을 주도했다.²³⁾

(2) 지방 스케일²⁴⁾

① 우말파스카(UMALPASKA): 우말파스카의 원 명칭은 ‘Ugnayan ng mga mamamayan Laban sa Pangwawasak ng Kalupaan’로 “토지전환에 반대하는 민중연대(People’s Alliance against Land Conversion)”를 의미한다. 우말파스카는 브라이언트와 베일리의 구분에 의거할 때 전형적인 풀뿌리지원조직(GRSO)라 할 수 있다. 본래 우말파스카는 농민의 토지권리와 지역 수준

23) 인터뷰 과정에서 두 신부는 모두 해방신학적 전통이 강한 소소곤 가톨릭 대학 출신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또한 보건소 및 커뮤니티 대학 강사들과 더불어 섬 안에서 가장 엘리트 계층에 속한다. 따라서 신앙 측면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로서 사깁 이슬라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24) 지방 스케일의 반광산 연대의 활동은 주로 라푸라푸 섬이 속한 알바이 주와 인근의 소소곤 주에서 활동을 조직화하는 개인과 조직들에 의해 수행된다. 라푸라푸 섬이 속한 알바이 주와 인근의 소소곤 주의 다양한 단체들(농민운동조직, 환경NGO, 개발NGO)이 반광산 연대에 합류했다. 이 외에도 학계(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의 환경공학과 및 학생회), 교계(소소곤 주교회, 레가스피 청년 신자연합), 언론 등이 반라파엣 연대에 결합했다.

에서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농민운동단체이다(인터뷰: I_005). 이들은 알바이 주와 소소곤 주를 관할하는 단체로 지역에서 농민, 토지, 광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주민운동을 조직하고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한 각종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② 알마(ALMA)²⁵⁾와 아클라스(AKLAS)²⁶⁾: 우말파스카가 상시적인 지방 수준의 운동조직이라면 알마와 아클라스는 다양한 단체들이 망라된 대책회의라 할 수 있다. 라파엣이란 회사를 직접 겨냥한 이들의 투쟁은 라푸라푸 섬에서의 광산 조업이 전면화된 2004년 이후에 생겨났다. 알마는 2004년에 알바이 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아클라스는 2005년 10월에 광산 유출사고 후, 피해를 입은 소소곤 지역의 어민들과 각종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기타자료: E_004).

③ 사라(SARA): 2005년 10월 광산의 광산폐기물 유출사고는 라푸라푸 섬이라는 협소한 공간을 넘어서 범국가적인 이슈로 부상했으며, 결국 대통령령에 따라 소소곤의 주교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환경부가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라파엣에 시험 가동을 허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반광산연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반라파엣 운동을 할 것을 결의하고 2006년 6월 6일 사라(SARA: Save RapuRapu Alliance)라는 연대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후 사라는 반라파엣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구가 되었다.

④ 알바이 주정부(Albay Province government): 2007년 5월 지방선거에서 사라의 지원에 힘입어 당선된 주지사 살세다는 라푸라푸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고, 2007년 10월 또 다른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라파엣에 대한 광산허가의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²⁷⁾ 사라에 참여하고 있는 알바이 주의 공무원이자 알바이 주의 환경

25) “Anti-Lafayette Mining in Albay”의 두음문자임.

26) Alyansa Kontra lafayette sa Sorsogon 혹은 Allinance against Lafayette Mining in Sorsogon의 두음문자임.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 보좌관 랑가스(Rangass, M)는 주지사 살세다가 하원의원 시절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려주었다(인터뷰: L_008). 그에 따르면, 주지사 살세다는 광업으로 인한 지역부흥 대신 환경친화적 행정과 생태관광과 같은 대안적 발전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3) 국가 스케일

① CEC-Phil과 깔리카산: 라푸라푸 문제에 관련해 CEC-Phil과 깔리카산²⁸⁾과 같은 마닐라에 소재한 환경 NGO들이 개별 조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한다. 이들은 브라이언트와 베일리가 구분한 환경NGO에서 전형적인 풀뿌리지원조직의 역할을 국가 수준에서 수행한다. CEC-Phil이 교육적인 조치들과 주민 조직화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깔리카산은 주민들의 직접행동을 지원하고 국내외에 필리핀의 환경이슈를 전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아카이브: A_006).

② 디펜드 패트리모니(Defend Patrimony): 디펜드 패트리모니는 필리핀에서 기업형 광산에 반대하는 모든 조직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범국가적인 연대체이다. 1996년 마코퍼 참사를 계기로 전국의 주민조직, 환경단체, 민중단체, 교회들의 연대기구로 조직되었다. 디펜드 패트리모니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광물을 비롯한 필리핀의 각종 자연자원을 국부(國富: National Patrimony)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에 의한 대규모 개발 행위를 민중의 삶을 수탈하고 국부를 약탈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엄밀히 구분하자면 디펜드 패트리모니의 입장은 반(反)광산이 아니라 반(反)기업형광산이며, 생태적 근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을 통해 친민중적·친환경적 광산개발과 내생적 경제성장을 옹호한다(Ibon Foundation, 2005).

27) Manila Times, "Governor asks suspension of Lafayette mining permit", "Dec.20, 2007", 출처: <http://www.manilatimes.net/national/2007/dec/20/yehey/prov/20071220pro4.html>.

28) 깔리카산 홈페이지: <http://www.kalikasan.org/kalikasan-cms/>. 원(原)단체명은 "Kalikasan People's Network for the Environment"이며, 깔리카산은 '자연'이란 뜻의 따갈로그어이다.

(4) 국제 스케일

①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그린피스동남아시아의 필리핀 지부는 2006년 지구의 날 행사에서 제1회 락파어워드(LAGPAK Awards²⁹⁾)를 만들었는데, 2005년 10월의 광산폐기물 유출사고의 책임을 물어 라파엣과 환경부를 제1회 락파어워드의 수상자로 결정했다. 이들이 라푸라푸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6년 1월 라푸라푸 섬에 멸종위기종인 피그미 암고래의 사체가 떠오른 것에서 촉발되었다고 한다(인터뷰: I_006). 이후 그린피스동남아시아는 리스크 아시아컨설팅(Risk Asia Consulting)이라는 조직을 통해 라푸라푸 섬의 광산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 『바보들의 금(Fool's Gold)』을 출간(2006.6.8)하면서 라푸라푸 사건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 한편 그린피스는 에스페란자(Esperanza)호를 타고 유해폐기물의 해상 거래, 불법포경, 핵선박의 이동 등을 지지하는 활동들을 전개하는데, 2006년 8월에는 8일간 라푸라푸 앞바다에 머물면서 라푸라푸 주민과 인근 환경단체들의 반(反)라파엣 투쟁을 지지·지원했다.

② 옥스팜 호주³⁰⁾: 옥스팜 호주의 중점 캠페인 대상은 노동권, 공정무역, 광업, 석유, 가스에 대한 감시 및 관찰 활동이며, 광업과 관련해서는 광산 옴브즈맨(mining ombudsman)제를 실시한다. 호주는 세계 광산업의 선도국가로 수많은 주니어 광업사들과 광물투기자본들이 호주를 경유해 남반구의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옥스팜 호주의 광산 옴브즈맨 활동의 반경도 넓어지고 있다. 옥스팜 호주는 2007년 3월 사립 이슬라의 대표인 토니(Mang Toni)와 CEC-Phil의 사무총장 프란체스카(Francesca Qiampo)를 초청해 퍼스(Perth)에 위치한 라파엣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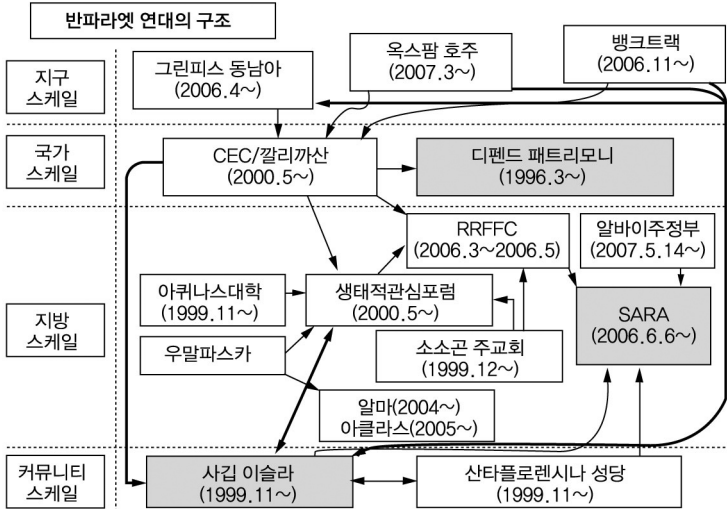
③뱅크트랙(Banktrack)³¹⁾: 뱅크트랙은 네덜란드의 환경단체로, 라푸라푸의 주민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국제단체 중 신자유주의 시대 새로운 유

29)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과 집단에게 수여하는 일종의 환경오염 상이다.

30) 옥스팜 호주 홈페이지: <http://www.oxfarm.org.au>.

31) 뱅크트랙 홈페이지: www.banktrack.org.

<그림 2> 반라파엣 연대의 구조



형의 환경압력단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활동의 목표는 제3세계의 환경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뱅크트랙이 라푸라푸 프로젝트에 관계하게 된 계기는 네덜란드의 국민은행이라 할 수 있는 ABN AMRO가 라파엣의 제1투자자로 라푸라푸 광산조업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구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모니터링하는 단체로서 뱅크트랙은 2005년 10월 라푸라푸 사고 이후 이 사건을 주시하면서 지원방안들을 모색해왔다.

뱅크트랙은 2006년 11월에는 ABN AMRO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활동가를 필리핀에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네덜란드로 돌아간 후 이 조직은 ABN AMRO에 라푸라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으며, 이후에는 BTRapuRapu라는 e-그룹을 운영하면서 라푸라푸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천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2007년 2월 조업재개가 결정된 이후 국제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표 2> 스케일별 저항 담론의 변화상

스케일	변화된 의식과 담론	관계된 행위자
커뮤니티	가난한 어민에서 투쟁하는 활동가로(어민과 크리스천으로서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 자신의 환경남용을 반성, 식림운동 전개	사깁 이슬라 회원(I_009) 사깁 이슬라, 교회 관계자(I_004)
지방 (주정부)	선거 투쟁을 통한 합법적 광산개발 반대운동 대안적 발전담론의 모색(생태관광 및 기후변화 거점 도시)	우말파스카, 사라(I_007) 주지사(I_008)
국가	국부유출 저지에서 생태적 근대화로	디랜드 패트리모니(E_001)
지구	환경가치의 재발견해 지역주민의 긍정적 변화 유도, 자본에 국적과 책임감 부여하기(지구자본의 초국적 행위 감사), 직접광산개발주체뿐 아니라 투자주체에 대해서도 책임감 부여	그린피스 옥스팜 호주 뱅크트랙

2) 다중 스케일적 담론의 상호작용

2005년 유출사고 이후 라푸라푸는 알바이 주에 위치한 작은 섬일 뿐 아니라 커뮤니티 - 지역 - 국가 - 지구적 수준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 갈등하면서 개별 행위주체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권력 쟁투의 장이 되었다. 이들은 실천과 담론의 영역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의 망을 형성한다(<그림 2> 참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항의 내러티브는 스케일 간에 역동적으로 이동하며 스케일별로 행위자들에 의해 전유되며,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낳는다는 것이다. 저항 진영은 행위자나 집단 별로 구별되는 담론을 가지고 있지만, 투쟁과 연대의 과정에서 저항의 담론을 공유하게 되었다.

3) 스케일별 저항과 담론의 특성과 변화

(1) 커뮤니티 스케일: 어민과 크리스천으로서의 긍정적 정체성

반광산연대의 활동은 라푸라푸 주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라파엣은 라푸라푸 프로젝트의 제안서에서 섬의 주민들을 척박한 환경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주민들로 묘사하면서, 광산개발은 직업과 세금을 섬에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에 섬 주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홍보했다. 하지만 유출사고를 통해 섬 주민들은 개발로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자각하게 되었다(인터뷰: I_009). 또한 광산개발로 고용된 주민의 수도 처음 약속에 비해 훨씬 더 적었을 뿐 아니라 그것도 3개월 단위의 계약직 노동자였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게 되었다(인터뷰: I_010).³²⁾

투쟁의 과정에서 어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주민들은 자신이 생계를 의지하는 해양 생태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라푸라푸 섬이 생계를 의지하기에 충분한 곳이라 여기게 되었다. 이들의 이러한 변화에는 그린피스라는 국제적인 환경단체의 조사활동과 지지·지원이 큰 보탬이 되었다. 즉, 그린피스 조사 이후 섬 주변의 바다는 비교적 넉넉한 해양생태계 자산과 멸종위기종까지 갖춘 꽤 살만한 곳으로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된 것이다(인터뷰: I_004).

주민들이 집단적인 저항의 연대를 형성하게 하는 데는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교회는 라푸라푸 프로젝트를 둘러싼 모든 정보들이 집적되는 의식화의 장소일 뿐 아니라 기도와 미사 참여를 통해 주민들 간의 유대의식을 강화하는 영적인 장소이기도 했다.

(2) 지방 스케일: 대안적 발전담론의 모색

지방 수준의 행위자들 가운데서는 특히 알바이 주정부의 역할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푸라푸 프로젝트에서 사실 주정부는 주요한 행위

32) 라파엣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비노사완에 거주하는 노동자인 Renan은 광산개발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라면서 “가서 조업을 멈추게 하는 것이 비노사완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인터뷰 자료는 이본재단의 조사보고서(2007)에서 발췌한 것임.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우회해 직접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가며 다국적기업에게 광산개발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변화를 모색할 필요를 느낀 지역의 환경 단체들은 선거를 통해 광산폐쇄에 동조하는 후보를 주지사로 지지했다. 새로 당선된 주지사 살세다는 라푸라푸 프로젝트에 대한 폐쇄 의견을 검토하면서, 광산이 아니라 생태관광, 기후변화적용 거점도시 등으로 알바이 주를 자리매김하려 시도했다. 살세다는 대안적 발전담론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면 지역사회는 환경파괴적인 광산개발 대신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길을 따르게 될 것이라며, 다른 방식의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했다(인터뷰: I_008).

(3) 국가적 스케일: 국부 유출 저지와 생태적 근대화

국가 스케일에서 저항담론을 주도하는 디펜드 패트리모니의 활동 과정에서 이들이 생산해내는 담론들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다. 앞서도 지적했듯 이들은 모든 종류의 광업을 반대하는 원론적인 환경주의자는 아니다. 이들은 광물자원은 축복받은 국가적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산업화와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외국자본과 기술에 의한 광산개발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국부를 외국인들에게 강탈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외국계 광산기업과 자국민들을 이분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기타자료: E_001).

이들은 광산폐쇄를 넘어 친민중적·친환경적 광산개발을 통해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국가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확장한다. 이는 정부에 책임을 물으면서 정부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생태적 근대화 전략으로 변화했다(아카이브: A_001).

(4) 국제적 스케일: 환경가치의 재발견과 자본에게 책임 묻기

앞서 살펴본 국제적 스케일에서 라푸라푸 주민들을 지지·지원하는 세 단체는 각 단체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각각 상이한 지점에서 라파엣의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활동을 지지한다. 그린피스는 전통적인 환경단체로서 이 지역에서 고래상어와 바다거북과 같은 세계적인 희귀종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즉, 이곳이 생태적으로 의미 있는 곳임을 부각시켜 라푸라푸 섬 인근 바다의 환경적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돕는다. 호주의 옥스팜이나 네덜란드의뱅크트랙은 자본에 환경적 책임을 묻는 압력을 행사한다. 호주의 옥스팜은 주로 자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자국 기업에게 친민중친환경적 개발(Pro-people Pro-Environment Development)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자국 기업의 조업이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그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펼친다. 반면 뱅크트랙은 광산기업 자체가 아니라 그들에게 투자하는 자국 은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진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환경단체이다. 금융자본이자 투기자본으로서 자국의 은행이 환경적으로 유해한 사업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이다.

5. 결론

지금까지 필리핀 라푸라푸 섬에서의 대규모 광산개발의 전개과정과 유출사고 이후의 다양한 행위자 및 조직들의 대응을 시간적 추이와 스케일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라푸라푸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반라파엠티연대의 활동을 다중 스케일적 측면에서 조망함으로써, 반광산운동이 섬 밖의 힘 있는 신자유주의 세력 대 힘없는 피해자로서의 주민의 구도라는 국제적인 환경갈등 이상임을 강조하고자 노력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자장 안에서 필리핀 정부는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제3세계 국가들 간의 외국자본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개발욕망을 부추기고 있다. 대규모 개발을 위한 지배 체계모니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고, 중

중 폭력적인 방식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배세력과 다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개발계획의 환경 및 주민 생활의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필리핀의 사회운동은 민주화 이후 다변화의 과정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발달한 시민사회를 갖게 되었으나, 1987년 민주적 정권교체 이후에는 분절과 분열의 과정을 겪으며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되었다고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운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또한 개발이익에 좌우되지 않는 필리핀 내 진보적 NGO들의 존재와 활동에 주목하며 부문별 활동에서뿐 아니라 정치적 의제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NGO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운동의 우편향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극복하려 시도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자연적·인위적 환경재난은 지역주민과 진보적 NGO들의 새롭고 강고한 결합을 낳고, 지구화된 환경에서 국제적 NGO들의 연대와 지지까지 결집되어 중앙정부와 엘리트 자본(해외자본 포함)을 안팎에서 공략하는 모습을 라푸라푸의 사례를 통해 보여줄 수 있었다. 즉, 광산개발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결합하는 지역-국가-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진보적 NGO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운동의 형식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아래로부터의 지구화의 한 사례로 제시되기에 충분하다.

이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세계 환경문제에 대한 다중 스케일적 접근을 통해 국제적 환경문제를 보다 구조적인 정치경제학적 문제로 확대해 설명력을 높였다. 라푸라푸 섬의 반광산 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중앙정부와 다국적 광산자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계형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유출 사고 이후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이 가담하면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다중 스케일적 저항과 연대로 진화했다. 따라서 여기서 지역단위의 저항과 투쟁은 신사회운동식 환경운동이라기보다 생계형 환경운동이라는 점에서 제3세

계적 민중운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이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상이한 시기에 반라파엣 연대에 참여했지만,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 간의 담론들을 변화 발전시키면서 광산폐쇄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칠 수 있었다. 따라서 반라파엣 연대의 반광산운동은 저항 진영이 선택할 수 있는 스케일 정치학의 전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아래로부터의 지구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라푸라푸 사례가 보여주듯, 제3세계의 생계형 환경저항운동이 신자유주의적 개발주의 시대에 주민운동, 범국가적 저항운동, 지구적 진보운동의 새로운 연대의 중심으로 작동할 때, 이 운동은 부문운동을 넘어서 체제개혁적이며 대안창출적인 운동으로 재조직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Abstract

Anti-Mining Community Movement and Multi-Scalar Solidarity:
Political Ecology of RapuRapu Project in the Philippines

Eom, Eun-Hui

This study aims to describe and interpret th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community people's protest from a simple resistance for subsistence to the new type of social movement by the case of anti-mining movement in RapuRapu Island. For this purpose, I have traced the discourses and practices of various actors from multiple scales, clarified the properties of each scalar actor, and analyzed the changes in their narratives and discourses through scalar interactions.

RapuRapu Mining Project is the first one acquiring the mining permit as 100% foreign ownership in the Philippines. The project has been initiated by Australia based mining firm named Lafayette with two Korean companies in 2004. Actually RapuRapu Island is a small fishery community and wasn't suitable as a mining site because it is located in the pathway of tropical typhoon. However, central government and mining TNC have persisted the mining in this island, and mining spills has broken two times in October 2005. After accidents, most of RapuRapu people faced the difficulties in their livelihood because of the polluted marine ecosystem.

RapuRapu struggle was started on the conflict between neoliberal central state and mining TNC and powerless community people as victims. After mining spill, however, it has evolved toward complex, dynamic, and multi-scalar protests since many agencies and group in various scales have involved in. Because each agency or organization has different interests involving RapuRapu mining project, their starting points and mobilized discourses were also different. However, they had closely interacted with each other inside protests, in turn, had made changed their discourses and practices positively, and had strengthened their solidarity for shutting

down mining development. In this process, opposite camp has showed the possibility of globalization from below through engaging in scale-politics.

Keywords: RapuRapu mining spills, resistance for subsistence, multi-scalar protest, scalar interaction, globalization from below

참고문헌

- 박승우. 2007. 「최근 필리핀의 선거정치와 사회적 변화: 변화와 지속성의 혼재」. 《동남아시아연구》, 17(2), 131~172.
- _____. 2008. 「민주주의의 이행 이후 필리핀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의 변화」. 『아시아의 민주화과정과 사회운동: 어떤 변화와 분화를 경험하고 있나?』, 2008년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102~126.
- 엄은희. 2008a. 「필리핀 광산업의 신자유주의화: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8(2), 69~102.
- _____. 2008b. 「환경의 신자유주의화와 제3세계 환경의 변화: 필리핀 라푸라푸 광산 프로젝트의 정치생태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병천. 2004. 「갈 폴라니의 제도경제학과 시장사회 비판: 60주년에 다시 읽는 『대전환』」. 《사회경제평론》, 23, 159~188.
- 정현주. 2006. 「사회운동의 공간성: 사회운동에 있어서 지리학적 기여에 대한 탐색」. 《동남아시아연구》, 41(4), 470~490.
- 조희연. 2008. 「민주화과정에서의 사회운동의 변화와 재구성」. 『아시아의 민주화과정과 사회운동: 어떤 변화와 분화를 경험하고 있나?』, 2008년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1~65.
- 허성우. 2008. 「민주화 이후 여성운동의 변화와 페미니스트 대항 헤게모니 구축 전망: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민주화과정과 사회운동: 어떤 변화와 분화를 경험하고 있나?』, 2008년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66~94.
- Bello, W., H. Cpcena, M. Guzman and M. L. Malig. 2004. *The Anti-Development State: The Political Economy of Permanent Crisis in the Philippines*. Quezon City: Department of Sociology, UP Diliman and Bangkok: Focus on the Global South.
- Bryant, R. and S. Bailey. 1997. *Third World Political Ecology*. London: Routledge.
- Follath, E. and A. Jung(eds.). 2006. *Der neue Kalte Krieg*. Deutsche Verlags-Anstalt(에리히 폴라트·알렉산더 융 외. 2008. 『자원전쟁』. 김태희 옮김. 영림카디널).
- Hillhorst, D. 2003. *The Real World of NGOs*.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Holden, W. and R. D. Jacobson. 2006. "Mining amid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and mining in the Philippine." *Natural Resources Forum*, 30, 188~198.
- Hutchcroft, P. 1991. "Oligarches and Cronies in the Philippine State: The Politics of Patrimonial Plunder." *World Politics*, 43(3), 414~450(허치크로프트 지음·박사명 옮김. 1992. 「필리핀 국가와 과두제: 가산제적 점탈의 정치」. 동남아 정치연구회(편). 『동남아 정치와 사회』. 한울).

- Ibon Foundation. 2005. Confronting TNC Control in RP Mining. *IBON Facts & Figures*. 28(1). Ibon Foundation.
- _____. 2007. *Mining RapuRapu's Pot of Gold: A Study on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the Rapu-Rapu Polymetallic Mining Project on the Residents of Rapu-Rapu, Albay and Prieto Diaz, Sorsogon*. Ibon Foundation.
- Kelly, P. 1997. "Globalization, Power and the Politics of Scale in the Philippines." *Geoforum*, 28(2), 151~171.
- Marston, S. 2000. "Globalization: from domination to resistance." *Third World Quarterly*, 21(6), 1059~1070.
- Newman, R. P. 2005. *Making Political Ecology*. Hodder Arnold.
- Office of the President. 2004. *Executive Order No. 270: National Policy Agenda(NPA) on Revitalizing Mining in the Philippines*.
- RapuRapu Fact Finding commission(RRFFC). 2006.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Fact-Finding Commission on the Mining Operations in Rapu-Rapu Island*.
- Risk Asia Consulting. 2006. *Fool's Gold: The False Economic Promises of the Lafayette Mining Project in RapuRapu*. Greenpeace Southeast Asia.
- Swyngedouw, E. 2004. "Globalisation or 'glocalisation'? : Networks, Territories and rescaling."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17(1), 25~48.
- Tujan, A. and R. B. Guzman. 2002. *Globalizing Philippine Mining*. Quezon City: Ibon Foundation.
- Philippine Star. 2006.6.15.
- Daily Inquirer. "Milenyo's causes severe damage to mining facility." 2006.10.4.
- _____. "Environmentalists from 27 nations sign petition for investors in Rapu-Rapu mine to pull out." 2007.2.17.
- Manila Times. "Governor asks suspension of Lafayette mining permit." 2007.12.20.
- 칼리카산 홈페이지 <http://www.kalikasan.org/kalikasan-cms>
그린피스동남아시아 <http://www.greenpeace.org/seasia>
옥스팜호주 <http://www.oxfarm.org.au>
조이 살세다 정보 http://en.wikipedia.org/wiki/Joey_Salceda
뱅크트랙 홈페이지 <http://banktrack.org>
세이버라푸라푸 블로그 <http://saverapurapu.blogspot.com/>
Mine and Communities <http://www.minesandcommunities.org/article.php?a=1243>

논문접수일: 2008. 11. 11

게재확정일: 2008. 11. 28